

광주에 서울산(産) 소형 연극들이 몰려 오고 있다.

대형 뮤지컬이 주로 공연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소형 연극 작품의 광주 진출이 눈에 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연극이 광주를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라이어' 시리즈와 박철민이 출연한 '늑대 도둑 이야기' 등 서울에서 대학을 터트린 작품들이 간간히 공연됐다. 하지만 6월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6월 한달에만 세편의 연극이 관객을 만난다.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연극팬들은 반갑지만 연극 관객들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 극단들에게는 위기다. 이런 흐름을 계기로 지역 극단들이 새로운 관객 발굴에 적극 나서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이 퍼스트 타임... 연애특강... 룸 넘버 13

서울産 소형연극 광주 공연 속속

▲소규모 연극이 몰려온다

6월 광주를 찾는 작품은 '마이 퍼스트 타임'(6~7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연애특강'(19~21일 5·18기념문화관), '룸넘버 13'(19일~7월 19일) 등 세편이다.

'마이 퍼스트 타임'은 탤런트 최정윤과 강성민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에 내려왔던 '라이어'나 '순정만화'처럼 폭발적인 입소문을 탄 작품은 아니다. 서울 공연 후 6개월만에 광주 순회공연에 나서는데 광주 상륙 주기도 빨라졌다.

대형 뮤지컬 위주 소규모 공연으로 확대

이번에 내려오는 작품들은 지역 소극장 무대를 공략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광주를 찾았던 연극들은 서울의 100~200석 규모 소극장에서 공연되던 작품이지만 지역의 경우 장기 공연이 불가능해 대형무대로 옮겨 진행, 작품의 묘미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라이어' 시리즈의 라이쿠니 회귀작인 '룸넘버 13'은 무려 한달간 장기 공연을 진행한다. 소극장에서 한달간 장기 공연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룸넘버 13' 등이 지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 작품의 티켓 가격은 2만5천원~3만5천원선. 지역 연극 작품의 티켓 가격

이 1만원~2만원 정도인데다 초대권 손님들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기 공연을 진행하는 '룸넘버 13'의 경우 커피 전문점 케냐 등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전략을 짜고 있다.

▲지역 극단 '작품 레퍼토리화' 등 모색

현재 광주연극협회 산하 극단은 모두 13개. 이 가운데 1년에 한 작품 이상을 무대에 올린 단체에게 주어지는 정회원 극단은 모두 8개다. 지난해 극단 사정 등으로 한 작품도 올리지 못했던 '극단 Y'와 '극단 타' 등 5개 극단은 올해 정회원에서 제외됐다.

지역 연극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극단의 대표작품을 만들어 '레퍼토리화' 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다. 문예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1~2일 반작 공연하고 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극단들은 자체 레퍼토리 발굴에 힘을 쏟는

연극팬 환영...극단선 지역대표작 만들자 긴장

게 필요하다. 씨디아트홀을 갖고 있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의자'는 잘못됐다' '학문의과'를, 문예정터를 보유하고 있는 극단 '진달래 피네'는 '레브 이스' 등을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형'은 아니다.

지역 극장을 갖고 있지 않는 극단의 경우 극장측과 공동 기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품을 공연하며 대표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다.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극장축제, 광주연극제 등 합치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극 관련 행사를 일회성으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개별 극단의 지속적인 공연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홍보 마케팅을 강화,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극인 최화희는 "서울 극단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극단들의 자신들의 대표작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갈 길 먼 문예회관



김미은 문화부 차장

지난달 30일 광주시립 무용단의 '명성황후'가 공연중인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문예회관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발레 공연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마다 자막 해설을 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이날 공연된 '명성황후'는 관객들에게 익숙치 않은 '창작발레'라는 점에서

해설은 필수였다. 문예회관 측은 이날 LCD 프로젝터를 준비, 무대 옆 벽면에 자막해설을 띄웠다. 하지만 무대 오른쪽 벽면에 앉았던 기자는 해설을 읽을 수 없는 낭패를 겪었다. 자막 해설이 무대 양면이 아닌, 오른쪽에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차처럼 '사각지대'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나 오던 한 관객은 "스토리를 제대로 알고 봤으면 훨씬 재미있었을 텐데, 내 자리에서는 자막을 읽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건 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LCD 프로젝터가 한 대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관객들을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도 갖추지 않은 셈이다.

제작진은 당초 명성황후 진흥회 장면에서 승강대 3개를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공연에서 사용된 것은 두대뿐이었다. 승강대 한 대가 작동은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공연 중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문예회관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대작공연 준비해 놓고도 무대 장치 준비 미비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해내지 못한 건 아쉬웠다.

지난해 말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공연차 문예회관을 찾았던 가수 장사익씨는 깜짝 놀랐다. 때가 딱히 딱히 긴박하며,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를 보던 장씨는 관객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주며 광주 최고의 공연장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형회 추경예산이 잡혀 7월 복도와 분장실을 개보수할 예정이지만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최근 공연계에서 화제가 된 건 유·스퀘어 문화관의 개관이다. 1991년 문을 연 문예회관과 지난 달 개관한 유·스퀘어 문화관을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첨단 음향시설과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운영 시스템 도입한 유·스퀘어 문화관을 보고 문예회관의 현주소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문예회관도 나름대로 변신을 했다. 티켓 박스도 마련하고, 관객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었던 화장실 리모델링도 마쳤다. 올 여름에는 소극장 무대 장비 일부도 보수한다.

하지만 광주 최고 공연계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가 아할 길이 멀다. 광주시에는 매년 핏몸 예산을 투입, 임기응변식으로 개보수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집중 투자를 문예회관을 명실상부한 '공연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mekim@kwangju.co.kr

故 고정희 시인 문학세계를 기리며...

해남 생가서 6일 '문화제'

해남 출신 고(故) 고정희(1948~1991·시인)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한 '제8회 고정희 문화제'가 오는 6일 해남 삼산면 생가와 묘소 일대에서 열린다.

고정희기념사업회(회장 이의영)와 해남 여성의 소리가 주관하는 문화제에서는 유고시집인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뒤에 여백을 남긴다. 100권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교실이 돌아왔다'의 저자 조한해정 연세대 교수가 초청돼 '작가와 대화' 시간을 갖는다.

또 고정희 시 엮서 만들기, 메달 만들기, 탁본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전시마당에서는 시인의 유품 및 육필 원고, 생전 사진,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 등이 전시된다.

시인의 묘소에서 열리는 추모제는 고정희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글 읽기, 시인의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만난 고정희', '하자 기행담'과 '고글리(고시인의 글을 좋아하는 모인)'가 고정희에게 바치는 노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고 시인은 1975년 '현대시학'에 '부활 그 이후' 등이 추천돼 등단, '또 하나의 문화' 동인 등으로 활동했으며 1983년 '초혼제'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다.

광주 YWCA 프로그램 주간, 한국가정불교상담소 연구위원, '여성신문' 주간으로 한국계 미니즘 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중 취재자 지리산을 등반하다 실족, 43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희망 시인' 정호승과의 만남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등 단호함과 부드러운 겸비한 시와 예술을 써온 정호승(59·사진) 시인이 광주 독자들과 만난다. 원각사(주지 도제 스님)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6회 작가와의 만남' 자리에 정호승 시인을 초대해 '내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시(詩)'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원각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정씨는 자기만의 희망과 시로 힘든 세상이지만 꽃이 살아가는 메시지와 광주·전남지역과의 인연 등 시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 마디' 등 시집과 산문집 사

인생에 힘이 되어준 시

7월 월간사서 특강

구나 신청 가능하고, 오는 5월 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도슨트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의 작품 감상을 돕고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문의 062-608-4402. /오광록기자 kroh@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5일까지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0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이하 디자인비엔날레)를 보조할 도슨트(전시 해설자)를 모집한다. 미술·디자인·인문계열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도슨트 유경험자면 누

Advertisement for the Jeonju National Law Firm (Jeonju National Law Firm)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Jeonju, and Gwangju. The table includes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